잣나물털녹병 임업적으로 방제하자

잣나무 털녹병은 잣나무의 줄기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병이며,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병원균은 송이풀류와 까치밥나무류를 중간 기주로 하는 이종기생균(異種寄生菌)으로 병원균의 생활환(生活環)을 교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방법으로서 임지무육(가지치기, 풀베기 등), 병든나무 및 중간기주제거, 발병에 적합한 환경 회피등은 이 병의 임업적 방제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○ 병든나무제거

4월하순~6워하순에 잣나무줄기에 형성된 수포자는 피해임지의 순시로 병든 나무의 발견을 쉽게 한다. 다만 제거할 때 수포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병환부위에 비닐을 감아서 절단하고, 한곳에 모아서 불에 태우거나 묻어준다.

○ 중간기주제거

잣나무 털녹병균의 주된 중간기주인 송이풀류는 숙근성초본(宿根性草本)으로 고지대, 계곡부의 편평한 습지에 많이 분포한다. 송이풀류의 인력제거(人力除去)는 괭이나 호미등으로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주거나 제초제인 글라신액제(근사미)를 100~150배의 농도로 희석하여 분포상태에 따라 단목(單木) 또는 군상(群狀)으로 살포한다.

○ 가지치기

털녹병균은 잎의 기공(氣孔)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균사가 신장하여 줄기부위로 진전되며 그 기간은 2~4년 걸린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송이풀류가 주된 중간기주로 수관아랫부위의 잎을 통하여 감염되고 있는바, 임시무육을 겸하여 수고의 1/3정도 수관아랫부위의 측지를 잘라줌으로서 방제효과를 높일수 있다.